

미 하원 ‘웬비어 북핵제재법’ 통과

숨진 대학생 웬비어 추모 이름 北 국제 금융시장서 완전 배제 대북제재 어기면 IMF 불이익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 토 웬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 토 웬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해당 상인 위안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 토 웬비어 북핵제재법(H. 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미 재무부는 미국의 금융 기관이 북한 정부와 연관된 개인 또는 단

체에 이득을 주는 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법안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였다.

법안은 원유와 직물을 포함한 북한의 수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미국의 정치전문지 워싱턴 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방 국가들과 함께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전면적인 원유 금수를 대북제재 결의에 담으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해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필요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실행 여부가 좌우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앤디 바(공화·켄터

키) 하원의원은 이 법이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투자하는 누구에게라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현행 대북제재가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 웬비어법의 발의 이유다.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하원 규칙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실제로 북한과의 거래는 주로 중국의 기업과 은행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웬비어법의 주요 타겟은 중국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법안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법안이라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초 중국 등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법안이 통과될으로써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중국에 들러 독자적 대북제재 등 제재·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잔인한 취급을 받고 학대당한 오 토 웬비어를 기리는 차원에서 오늘 처리되는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제재법 추진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인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 토 웬비어는 지난해 1월 광둥주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몇새 만에 사망했다. /연합뉴스

미국, 서태평양 핵항모 추가 배치 트럼프 방한 앞두고 北 압박 강화



미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 (NHK 캡처=연합뉴스)

미국 핵항모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주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핵항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했다고 미군이 발표했다.

미군은 지난 6월 동해에 이례적으로 항모 2척을 전개해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루스벨트호의 서태평양 해역 진입으로 몇 달 새 이 해역에 다시 2개의 미 항모전단이 배치됐다.

NHK에 따르면 미군은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24일 미사일 구축함 등의 호위함 4척과 함께 일본 요코스카(横須賀)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제7함대 관할인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했다고 발표

했다.

루스벨트호는 지난 6일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기지를 떠나 아시아 쪽으로 항해해 왔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함모전단은 태평양 양 해군 병력을 진두지휘하는 3함대 소속이다. 3함대는 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안정을 증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7함대와 합동 작전을 벌여왔다.

미 해군 제7함대는 태평양의 날짜변경선 서쪽의 서태평양에서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을 관할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현재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활동중이어서 이 해역에 항모 2개전단이 전개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시진핑 집권2기 정치국 상무위원단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의 임명 사열 순

	시진핑 (64) (習近平)
	리커창 (62) (李克強)
	리잔수 (67) (栗戰書)
	왕양 (62) (王滄)
	왕후닝 (61) (王滌寧)
	자오리장 (60) (趙樂際)
	한정 (63) (韓正)

막 내린 중국 전대...시진핑 1인 체제 굳혔다

리커창 총리 등 7인 상무위원단 선임

중국 공산당이 2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이외에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등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오전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상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7인 상무위원단을 선보였다.

이날 신임 상무위원 회견에 시 주석과 리 총리에 이어 리잔수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리장(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 서기 순으로 입장해 당 사열을 알렸다.

관영 신화통신은 1중 전회 공보를 통해 시 주석이 당 총서기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됐으며 왕후닝이 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리장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인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위원단 직책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외에 리잔수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상무위원장, 왕양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석, 왕후닝이 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리장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 서기, 한정이 상무 부총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날 상무위원별 업무 분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3

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엔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이 사실상 모두 시 주석 측근들로 짜여 집단지도체제의 본연의 역할보다는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를 보좌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리잔수와 왕후닝은 시 주석의 심복이자 책사이고 자오리장은 총성파이며 왕 양 역시 시 주석에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한정(韓正)은 상하이(上海)·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시 주석 눈에 들어 상무위원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시 주석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어 보인다.

시진핑 집권 2기 상무위원 명단에는 차세대 주자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陳敏爾) 충칭 시 서기가 빠져, 결과적으로 후계 구도가 짜이지 않았다. 후춘화·천민얼은 25명의 정치국원 명단에는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10년 집권을 마치고 3연임을 시도하거나 재임 기간 정치국원 25명을 경쟁시켜 후계자를 뽑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치국원 2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명이 바뀌었고 덩쉐샹(丁薛祥) 중앙판공청 부주임, 차이치(蔡奇) 베이징 서기 등 시 주석의 옛 부하들인 ‘시자진’(習家軍)이 대거 진입했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는 쉬지량(許其亮) 부주



2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의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언론사 대학 순위 발표 하버드 1위...서울대 123위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교가 전세계 대학 순위 정상을 차지했다.

25일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2018년 글로벌 대학 평가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가 글로벌 점수에서 10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로 뽑혔다. 이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97.3점으로 2위, 스탠퍼드대가 92.3점으로 3위에 올랐다.

그 뒤로는 UC버클리(90.8점·4위), 옥스퍼드대(87.3점·5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IT·85.7점·6위), 케임브리지대(85.3점·7위), 컬럼비아대(84.6점·8위), 프린스턴대(84.2점·9위), 존스홉킨스대·워싱턴대·에일대(83.4점·공동 10위) 순이었다.

총 1250위까지 순위를 매긴 이번 평가에서 국내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가장 높은 123위(63.2점)에 올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공동 198위(58점), 성균관대 공동 200위(57.9점), 고려대 공동 274위(53.5점), 포항공대 공동 296위(52.5점) 등이 3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연구 성과와 이에 대한 세계 평가 및 지역에서의 평판, 출판물, 학술회의, 가장 많이 인용된 10%에 속한 논문 편수와 비율 등 13가지 기준을 차등 배점한 뒤 이를 합산해 순위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정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강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일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감정가 273,000,000 최저가 273,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제비마을 도로점 토지 4409평 감정가 30,000,000 최소가 30,000,000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평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일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일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3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